안서올 경력

여, 1988 (35세)

ann*****@naver.com

1010-***

010-*-3937**

● (51112)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로



경력

총 7년 9개월 (퇴사) 국립창원대학교 학력

대학교(4년)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 희망연봉

3,800~4,000만원

포트폴리오

https://oliviaan.netlif...

아랍지역민의 삶에 융화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한 경험 있음. G-Telp 89점(/99점) 보유.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에 (영어 및 아랍어) 능숙함.

Extensive experience living in Arabic regions, immersing myself in their cultures, and actively engaging with locals.

[핵심역량]

- Proficient in communication with foreigners,
- with a G-Telp score fo 89/99.
- A coordinator at Changwon National Univ.
- Overseeing multiple admission processes.
- Recipient of a national research scholarship.

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나의 스킬

외국어

Microsoft Office Suite

한컴오피스한글

IBM SPSS

Praat

기타

경력

총 7년 9개월

☑ 국립창원대학교

팀원 1년차

외국인 유학생 관리자, 외국인 입시 전임 담당, 유선 및 이메일 응대, 방문객 상담, 고등통계, 정부장학생 관리

☑ ㈜ 태안서브윈

2022.12 ~ 2023.02 • 3개월

2023.03 ~ 2024.01 • 11개월

사원 팀원 4년차

서류 정리 및 문서 작성, 회계 처리

♥ ㈜ 태안서브윈-(상용)2022년 함안전력지사 관내 변전소 청소용

2022.04 ~ 2022.12 • 9개월

주임 팀원 3년차

행정지원, 인사 및 스케쥴 관리, 현장업무 지원

연봉 2,400만원

❤️㈜ 태안서브윈

2019.08 ~ 2021.01 • 1년 6개월

사원 팀원

문서 수발

한국외국어대학교

2014.09 ~ 2015.02 • 6개월

아랍어과 학과장실 조교장 1년차

학생관리,

시간표관리,

문서작성,

인사처리,

주요의전 수행,

결제수납업무 및

전화응대 등

연봉 800만원

신중성어학원/르몽드어학원/아랍어 과외 교습

2011.09 ~ 2013.01 • 1년 5개월

임시직/프리랜서 1년차

아랍어 강사/개인 지도

연봉 300만원

한국장학재단 2012.03 ~ 2012.12 · 10개월

국가연구장학생 1년차

아랍어언어학 연구

연봉 800만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2011.03 ~ 2012.09 • 1년 7개월

중동어문학과 조교 2년차

학과 행정 및 학생 관리 등

연봉 320만원 근무지역 서울

학력 대학교(4년)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4년제) (주간)

2011.03 ~ 2013.02 (졸업)

아랍어

학점 4/4.5

지역 서울

창원명곡고등학교

자격/어학/수상

인천세계도시축전 자원봉사자부문 인천광역시장상

2009.10

인천광역시

국제청소년연합 제9회 영어말하기대회 미국대사관상

2009.06

주한미국영사관

포트폴리오 및 기타문서

포트폴리오

https://oliviaan.netlify.app

자기소개서

더 높은 하늘을 향해. (안서올_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가 진실게임 테스트느는아니지만, 저의 진솔한 얘기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이 열리던 9월 17일 오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올림픽을 기념하는 한글이름 서올 에다가 '지혜 서', '으뜸 올' 이라는 한자를 붙여 예쁜 이름을 완성해주었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 (아버지의 어머니)를 무척 좋아하셨는데 고생하며 지내신 할머니의 성씨인 "서"씨를 따라 저와 제 동생 이름을 '서'자 돌림으로 지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쪽 가족 이야기를 잠시하자면, 저의 친외할머니는 문경에 있는 재력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7 0년 전에 숙명여대 국문학과를 나오신 수재셨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사지를 못쓰는 형편이 되셨고, 외 증조할머니께서 딸의 거동을 도우며 함께 지내셨습니다. 어릴 때 진해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가면 외할머니가 불편한 몸이지만 동네 아이들을 모아서 방에서 공부를 가르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고, 동네에서 외할머니를 모두 선생님할머니(호랑이할머니)로 불렀습니다. 할머니의 문학적 재능을 조금 이어받은 건지 저는 (말솜씨보다) 글솜씨가 좋다는 말을 줄곧 들어왔습니다. 대학원에 가서 논문을 쓸때도 모든 석박사들이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정이 힘들기도 했지만 글쓰기 자체는 제가 좋아하는 활동 이어서 크게 무리없이 즐겁게 임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 성격이 사실적인 성향이 있어 소설체를 쓰고 이야기를 꾸미기 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고 분석하는 데에 더 두곽을 보이는 듯 합니다.

똑똑한 (사실적이고 분석적인) 머리를 지니시고 가정에 책임감을 줄곧 보이신 아버지와 감수성이 많고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엄마의 성향을 본받아 제 성격이 형성된 듯 합니다.

제 어릴 적 성장과정은 종교심이 강해서 중학생 때도 한 번씩 새벽기도에 참석할 정도로 (규칙에 따르고자하는) 종교적인 면모도 있었고, -현재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지만- 친구들을 돕고 정의를 구현하려고 노력하는 성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선교사님 자녀들이 외국인들을 데려와서 통역을 하며 한국생활을 돕는 보습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런 통번역가가 되고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외국어로 진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아는 언니들을 통해 이집트, 터키와 같은 나라에 관해 듣게 되었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알수없는 사막의 묘연으로, 나일 무명의 수도로 제 마음은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랍어를 전공으로 택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길지 않은 연수 기간이었지만 이집트와 요르단에서 지내고 연구과제를 수행했던 시간은 제 삶에 강한 임팩트를 주었고 멋진 추억을 안겨주었습니다. 현지인들은 물론 현지에서 만난 외국인들과 짧지만 깊이 교류하는 시간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간간이 연락하며 근황을 파악하는 외국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대학생 때 견문을 넓히기 위해 이곳저곳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짧은 시간을 내어 해외여행을 많이 갔었지만 무엇보다 이집트와 요르단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살로 부딪히며 그들의 삶에 융화되고 동고동락했던

시간들은 뿌리깊은 추억과 잊지못할 뜨거운 환대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던 성향에 맞추어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진학했고, 그후 결혼이라는 아지랑이 같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물결을 타고 학업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2014년 박사과정 진학. 2015년 결혼.) 아이 두 명을 낳고 양육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고 엄마가 되는 일은 희생이 따라야 아이를 온전히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생활 중에 생각지도 않은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여러과정을 거쳐 이제 아이들이 어느정도 자라나고 나도 다시 내 인생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회에나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후 처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은 태안서브윈이라는 작은 회사에서 기본적인 행정처리와 진행에 관련한 일로 시작하였습니다. 육아와 함께 제한을 덜 받고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저의 외국어 특기와 외국 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을 살려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유학생관리(담당)자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창원대학교 유학생 관리자 일은 제 천직이다 싶을 정도로 (외국인 입시 포함) 외국인과 연관된 민원과 관련된 업무는 저와 아주 잘 맞았습니다. 보통의 경우를 보면 외국인들에게 선입견 을 가지고 으레 겁을 먹거나 무서워하는데 저에게 애정어린 학생이자 손님처럼 느껴졌습니다. 업무를 하면서 외국인들과 크게 갈등이 없었고, 학과나 부서나 외부에서 문의전화나 요청이 오면 내 일 인듯양 거뜬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통의 전화나 이메일, 방문객 응대가 있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접수하고 해 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제 자리에서 맡았던 일은 분기별 고등고육통계 학부/대학원 유학생 담당 업 무와 정부초청장학생 (대학전형/해외공관전형) 입시 및 관리 업무, 창원대학교 학부 대학원 외국인특별전형 입시를(추가모집 포함) 학기별로 입시계획부터 자체감사, 교무회의, 대학원심의회, 예산처리까지 전무를 맡아 서 처리하였습니다. 법무부 FIMS 외국인 지침에 따른 비자지원업무, 관리, 보고 업무를 하였고, 교육부 현지국 가 한국유학박람회 오프라인(일본)/온라인 학교홍보를 지원하고, 학교 학적처리, 학사관리 지원, 외국인 취업 지원, 문화체험, 교내 체육대회 등의 행사를 기획 지원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 장학업무, 학교 내 비교과프로그램 국제학생회 장학통계업무 등 외국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문서를 상신하 고 회계 지원, 행정처리 및 공지 지원업무를 도맡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신입생/재학생)에게 그때마 다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일에 힘써 처리하였습니다.

저는 결혼 이후부터 제 삶이 기운 듯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갈등을 삶속에서 마주하였고(시댁 갈등, 교회 갈등), 경제적으로나 성격적으로도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습니다. 힘든 터널을 통과한후 제 삶에 안정을 가져다준 포인트는 바로 제 곁에서 지지하고 응원해주었던 창원의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분별력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옆에서 해주는 "Be on yourself. Be a free spirit. Do n't think about what others say. don't think about what others think. First think about your happiness. We'd like to see you more free spirited enjoying your life more, rather than thinking a lot about unnecessary things." 여러가지 응원의 메세지들은 저를 일으켜세우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일은 아주 잘 맞았지만, 그러던 와중에 남편의 불안정한 수입과 거의 저 혼자 아이들의 생활을 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주마다 주말업무를 강요받다 싶이 하고 (평일에는 내부 외부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전화 와 이메일 응대에 시간이 다 가곤 했습니다.) 최저임금(206만원/월)으로 받는 일은 제 일에 회의를 느끼게 되 었고, 더 나은 보수와 함께 제 효능감을 펼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용기를 내어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주)태안서브윈에서 일할 당시 2022년도 1년간은 10개월간 한국전력 함안지사 변전소 청소사업 외주를 받아함안지사 내 18개의 변전소를 주중에 매일마다 돌아다니면 청소하고 건물 관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매일 땀흘리며 같이 일하셨던 여사님들과 저희를 도와주셨던 타업체 사장님들과 매일매일 즐겁게 일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굳은 일이었을지라도 일을하면서 사람들과의 갈등과 (업체와의 갈등 포함)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외에도 한전에서 요청했던 복잡한 서류업무처리도 거뜬히 해내며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업을 관할하였던 한국전력 동읍지사(010-****-*****)에 연락하여 보시면 2022년 변전소 사업에 참여했던 (주)태안서브윈의 주임 안서올 직원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했었는지 긍정적으로 들어보실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순간 순간 주어진 업무에 온 마음을 들여서 세심한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래도 인생에 있어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은 모두가 연약하지만, 저도 언제나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길 기대 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의 자녀들 또한 학교에 가서 주변 친구들과 좋은 교우관계를 맺으며 좋은 영향을 주며 자라나기를 기대하며 양육하고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제 여정에 대해 더 실감나게 와닿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하며 한번 방문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부디 제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